LH 한국토지주택공사	보도자료	희망을 위한 LH의 약속, Life with Hope

배포 2026. 11. 5.(목) /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청년 목소리 듣고 주거복지의 미래 함께 만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 대상 「주거복지 국민소통 토론회」 개최

- 서울 청년 매입임대주택서 토론회 개최…청년·입주민·주거 전문가 등 참여
-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 착공물량 4만호 수준…2년 만에 18배 이상 늘어
- 이성훈 LH 사장 "올해부터 '28년까지 서울 지역 2만호 이상 입주자 모집 가능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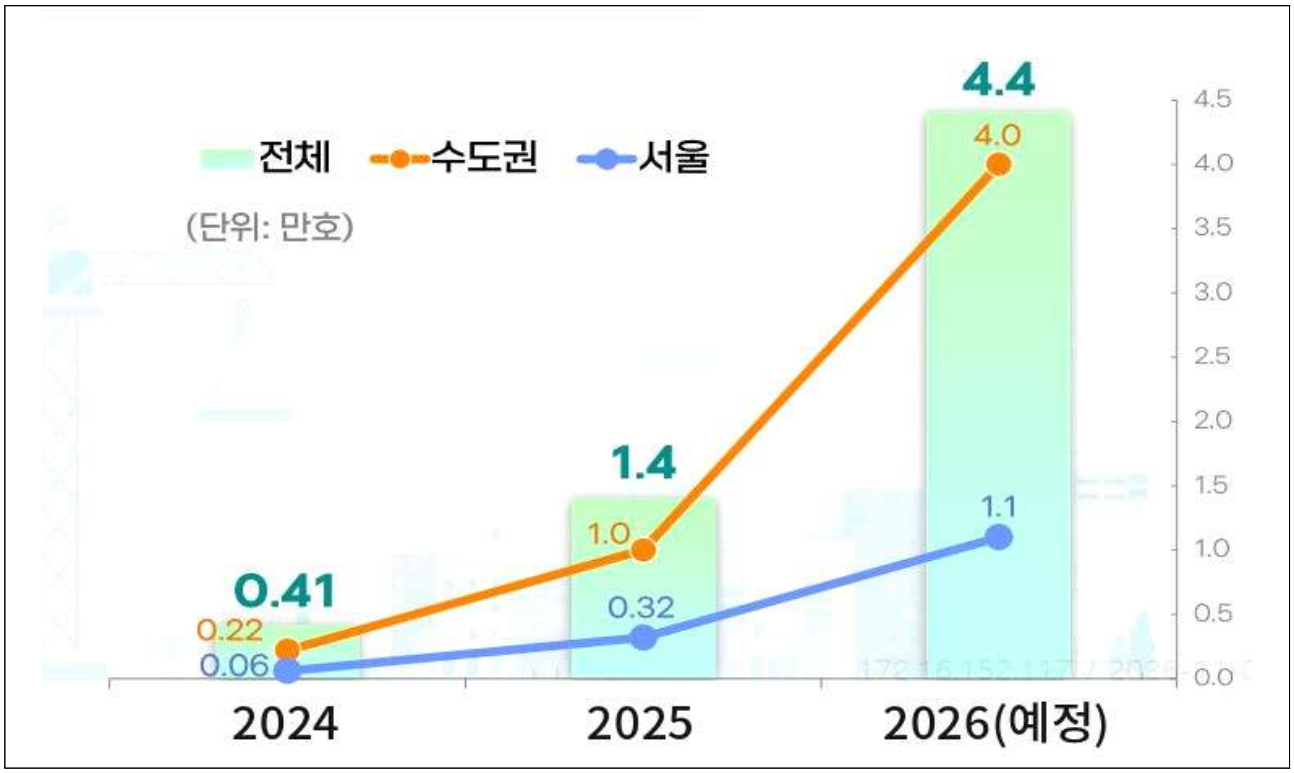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일(목) 서울 금천구 소재 청년 매입임대주택에서 「주거복지 국민소통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청년들의 주거 고민과 생생한 현장 의견을 듣고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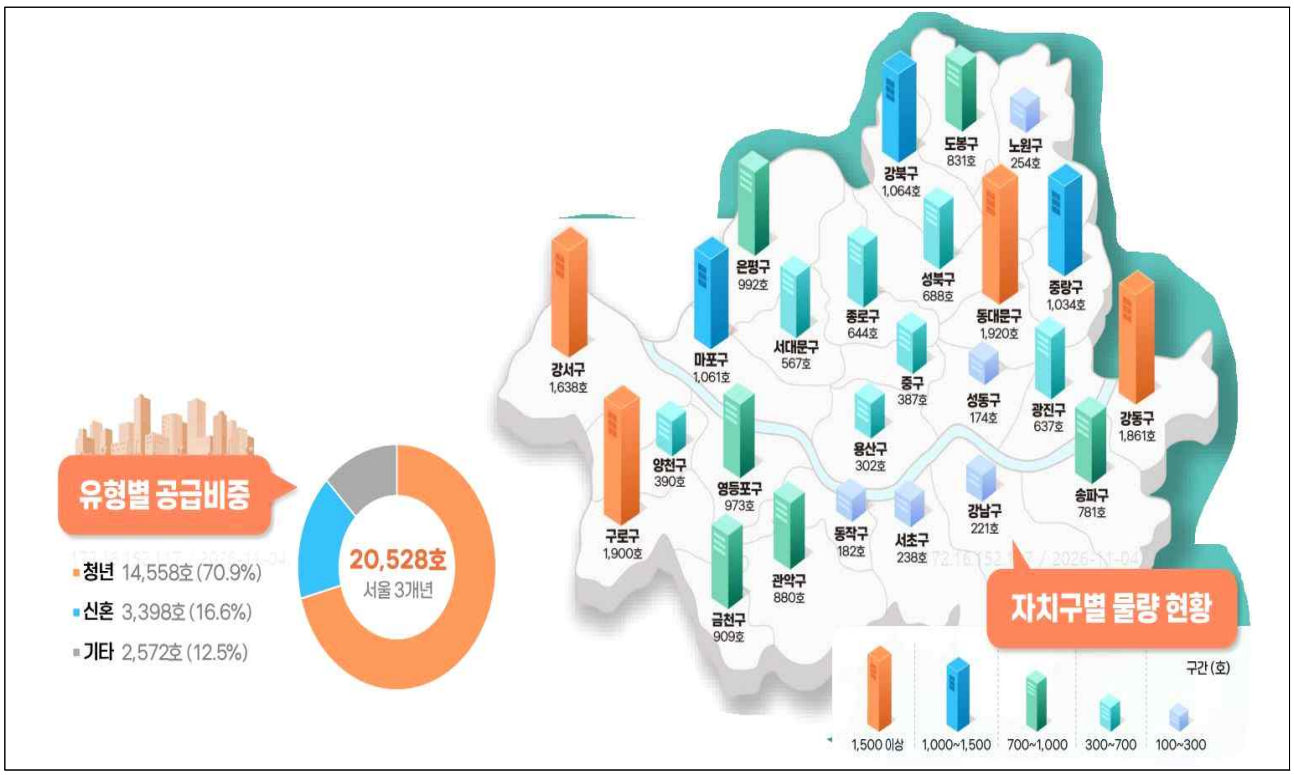
○ 토론회에는 이성훈 LH 사장을 비롯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 입주민부터 주거 분야 전문가(연구원 등), 청년 인플루언서 등이 패널로 참석했으며, 청년 주거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 이날 이성훈 LH 사장은 모두발언에서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더한 결과, 2년 전 2천2백 호에 불과하던 수도권 매입임대 착공 물량은 올해만 4만 호 수준에 달하며 2년 만에 18배 이상 늘었다"라며 "올해부터 오는 '28년까지 서울 지역에 총 2만 호 이상의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①) '24년~'26년 LH 매입임대 착공 현황 >



< (참고②) '26년~'28년 LH 매입임대 서울지역 입주자 모집 계획 >



□ 모두발언에 이어 발제 및 토론 순서에서 LH는 지난 3년간('24~'26)의 구체적인 매입임대 착공 실적과 동대문구 1,920호, 구로구 1,900호, 마포구 1,061호 등 서울 지역 연도별 입주자 모집 계획을 상세히 발표했다.

○ 참석자들은 ▲청년이 선호하는 주거기준 및 편의시설 ▲청약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 상의 개선점 ▲청년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주거복지 정보 전달체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특히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들이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거 안전망 사각지대, 사회초년생을 위한 임대주택 확대 필요성, LH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대비 부족한 점 등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려주었다.

○ 토론회에 참석한 윤경민 씨(매입임대 입주청년)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공급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특히, 토론회에 앞서 LH는 청년들로부터 주요 개선과제를 사전에 제안받고, 토론회 전후 인식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우선 추진이 필요한 「매입임대 5대 검토 과제」를 선정했다. LH는 최종 선정된 과제가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 이성훈 LH 사장은 "청년에게 집이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삶의 기반"이라며 "청년이 부담가능한 비용으로 도심 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소통과 실행력을 높이고 공공임대주택을 수도권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부서	주거복지계획처	책임자	팀 장	임보경	(055-922-3301)
		담당자	차 장	김태정	(055-922-3310)
			과 장	신오연	(055-922-3311)

참고 **관련 통계자료**

< (참고) '26년~'28년 LH 매입임대 서울 25개 자치구 입주자 모집 계획 >

SEOUL · 2026–2028

서울 25개 자치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

청년 · 신혼 · 기타 유형별, 3개년 공급 물량 한눈에 보기

3개년 총 공급

20,528

단위: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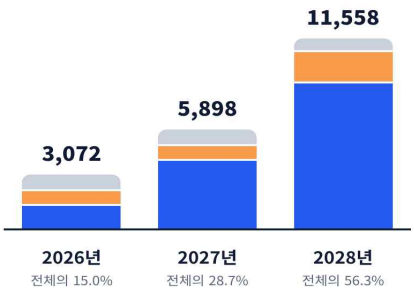
유형별 공급 비중

청년	신혼	기타
14,558 70.9%	3,398 16.6%	2,572 12.5%

청년 70.9% | 신혼 16.6% | 기타 12.5%

연도별 공급 추이

2028년에 전체 물량의 **56.3%**가 집중



핵심 포인트

01 · 상위 5개 구 집중

동대문·구로·강동·강서·강북 5개 구가 전체의 40.8%

8,383호 · 동대문구 1,920호로 최다

02 · 신혼 비중 높은 구

성동구 82.8% · 중랑구 48.9% 금천구 48.7%

신혼 물량 최다는 중랑구 506호

03 · 청년 중심 공급

중구 98.4% · 용산구 98.0% 마포구 94.1%

청년 물량 최다는 동대문구 1,580호

자치구별 공급 순위

3개년 합계 많은 순 · 막대는 연도별 누적

2026 2027 2028

	자치구	2026	2027	2028	합계
1	동대문구	189	524	1,207	1,920
2	구로구	134	296	1,470	1,900
3	강동구	138	610	1,113	1,861
4	강서구	285	536	817	1,638
5	강북구	114	229	721	1,064
6	마포구	352	192	517	1,061
7	중랑구	201	338	495	1,034
8	은평구	191	375	426	992
9	영등포구	94	158	721	973
10	금천구	155	161	593	909
11	관악구	147	393	340	880
12	도봉구	119	329	383	831
13	송파구	158	284	339	781
14	성북구	92	310	286	688
15	종로구	81	372	191	644
16	광진구	113	286	238	637
17	서대문구	113	116	338	567
18	양천구	73	105	212	390
19	중구	11	57	319	387
20	용산구	7	7	288	302
21	노원구	59	59	136	254
22	서초구	45	45	148	238
23	강남구	113	54	54	221
24	동작구	78	52	52	182
25	성동구	10	10	154	174

자료: 자치구별 연도·유형별 공급 계획 합본 (2026–2028)

비중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